

■ 2023년도 무대기술인턴십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무대기술인턴십지원 사업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4:0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소진, 박연용, 송대규, 이수용, 이영진

2023년 무대기술인턴십지원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무대기술 신규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인프라 강화 및 역량강화에 취지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분야 무대기술 전문 인력을 지망하는 신규 인력들에게 국공립, 민간 공연장의 현장 경험을 지원하여 다양한 장르의 무대기술 실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대기술 인력의 양성과 취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0건의 지원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체계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22년도 활동 실적 및 성과, 2023년도 활동 계획, 인턴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연장 무대기술 상근인력 현황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보유 여부, 공연장 규모 등의 지표도 고려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단체에 대한 사전 전수 검토를 수행하였고, 심의회에서 교차 토론하며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 예술분야 기여도 등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단체에 주목하였고, 그간 축적된 성과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턴 교육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인턴의 입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기술 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지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민간 공연장의 여건을 생각하면 인력 총원 차원에서 아쉬움이 클 수도 있겠으나, 이 사업의 목적은 교육을 전제로 한 인턴십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인력 양성 과정의 관점에서 심의하였고, 무대기술 인턴들이 시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시설이 갖추어진 극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심의위원들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원 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대기술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인턴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를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파악하였고, 교육적으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단체에 좋은 평가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공연장과 공연단체, 지역 안배, 인턴 근무 분야 배정(무대, 조명, 음향, 영상)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분야는 지원신청 건수 비율에 따라 배분) 좀 더 많은 단체에 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년 대비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새롭게 무대기술 분야를 공부하는 인턴들이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진 환경

속에서 전문 기술인에게 교육이 이뤄지길 원하며, 이를 위해 사업 마지막까지 인턴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 조언 및 방향 제시, 체험 소감 환류와 사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대기술인턴십지원 사업이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하는 무대기술 인턴들과 관련 공연장, 단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결실이 이루어져 어려운 공연계 현실을 딛고 제대로 된 무대기술교육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많은 좋은 인력들이 이 사업을 통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